“中企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업종·기업 협력 확대되길”

중기중앙회 ‘2026 백두포럼’

日 도쿄서 열려… 中企인 40명 참여
글로벌화, 해외진출 경험 등 공유
협동조합 공동 해외진출 성과 소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8번째)이 ‘2026 백두포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백두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등을 추가로 모색했다. 올해 17회째인 백두포럼은 내년부터 (가칭) ‘KBIZ 글로벌포럼’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일본 힐튼 도쿄 오다이바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백두포럼’은 2010년 당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학계 관계자 등이 백두산을 오르며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포럼을 만들자고 뜻을 같이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중국,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발전해 왔다. 백두포럼은 지난해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올해 포럼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업종별 협동조합·중소기업이 직접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백두포럼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발제에서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품목·시장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진출과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오랜 기간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수출선도기업부터 최근 해외진출에 나선 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글로벌화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수출선도기업의 글로벌화 성공사례로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는 일본 공작기계 기업 노무라VTC를 인수해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일본의 연구개발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수출국을 7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한 경험을 소개했다. 한영돈 한울생약 회장은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코스트코에 진출해 지난해 80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기업으로는 김석원 맑은물에 대표가 일본에서 도입한 낫토 제조기술을 접목해 단백질 에너지바를 개발하고, 이를 일본 돈키호테에 수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석원 대표는 “글로벌화는 양방향이다. 배울 것은 들여오고 팔 것은 내보내는 것, 둘 다 글로벌화”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해외진출 성과도 이어졌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전용공단 착공식을 개최하고, 국내 농기계 중소기업의 공동진출을 추진 중인 사례를 소개했다.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해 조합원사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온 성과를 공유했다.

한일 단체간 기술 교류·협력 사례도 있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 전국PCa창조개발교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및 기술교류를 통해 선진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진출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및 중기중앙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두포럼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며 “지난 16년간 해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 기반은 백두포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앞으로는 단체 간 교류를 넘어 개별 업종 및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벤처기업 10곳 중 7곳, ‘업무 집중’ 경험

벤처협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조사’
절반 이상 평균 주 41~52시간 근무
근로시간제도 활용 기업 48% 그쳐

벤처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제품·서비스 개발 등으로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집중 기간 중 주요 담당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2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들은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운영 절차 개선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벤처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 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162개사 가운데 67.9%인 110개사는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했다. 업무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R&D 일정’(51.8%)이 가장 많았고 ‘고객사 납품·계약 일정’(47.3%), ‘프로젝트 마감’(43.6%) 순이었다. 업무 집중 지속 기간은 ‘1~2주’(32.7%)가 가장 많았다.

업무 집중 기간 중 주요 담당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2시간’(32.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1~48시간’(2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제도’ 활용은 미미했다. 업무 집중 경험 기업 중 절반에 못미치는 48.2%만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했다. 26.4%는 활용을 검토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고 ‘활용하지 않은 기업’도 25.5%에 달했다.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51.2%) ▲보상휴가제(42.7%) ▲선택적 근로시간제(40.2%) 순이었다.

활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업무 발생 시점이 급박해 사전 도입이 어려움’(56.1%)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특정 기간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6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간소화’(31.5%) 등의 목소리도 컸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제품 출시, 고객사 납품 등 특정 시기에 소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 18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권형택 기보 이사장, 강승준 신보 이사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 창업·스타트업 지원위해 전방위 행보

서울대 창업지원단과 기업 공동발굴
BNK부산·경남銀과 400억 협약보증
Npay 스타트업 플랫폼 활성화 등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스타트업 등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서울대학교 기술 기반 유망 혁신스타트업 공동발굴·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의 우수한 기술창업 인프라와 기보의 기술금융 역량을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학내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투자 연계 ▲기술·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우수 창업기업의 상호 추천과 지원성과 공유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과는 ‘청년창업 넥스트웨이브(NEXT-WAVE)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협약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우대(3년간) ▲고정보증료 적용(0.3%, 만 39세까지 최대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0.3%p, 3년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3년 동안 보증료 부담 없이 기술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기보는 지난 17일엔 네이버페이, 코드박스와 ‘엔페이(Npay) 스타트업 플랫폼 활성화 및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Npay 스타트업’은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Npay·코드박스가 공동 추진해 지난 7월 출범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으로, Npay와 코드박스가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정보와 기업설명회(IR) 자료를 확인하고 투자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보 지원기업의 민간 후속 투자유치 지원 ▲플랫폼 내 ‘기보 지원기업 전용관’ 운영 ▲공동 IR 및 데모데이 등 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 홍보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산업-장학건설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적용 확대 ‘맞손’

삼표산업이 하이엔드 건축 현장으로 특수 콘크리트 공급을 넓히며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8일 서울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장학건설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주거와 상업·문화시설 현장에 삼표산업의 대표 VAP 브랜드인 ‘블루콘(BLUECON)’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효성벤처스, 유망기업 ‘솔닥·앳홈’ 투자

벤처투자와 조성한 2호 펀드 통해
첨단기술 분야 유망기업 투자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뷰티테크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벤처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닥’과 뷰티테크 기업 ‘앳홈’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24년 한국벤처투자와 공동 조성한 2호 펀드 ‘스타트업코리아 효성딥테크투자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망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솔닥은 비대면 진료 예약과 접수, 처방, 의료용품 배송, 요양비 청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용품 유통과 정부·기업 대상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앳홈은 음식물처리기 등 소형가전과 가정용 뷰티기기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미닉스(MINIX)’와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톰(THOME)’을 운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